

# 政治發展研究에 있어서의 사이버네틱스理論의 效用性

鄭 熙 彩  
(釜山大學校)

## I. 머리 말

政治發展에 관한 研究는 아직 嬰兒段階도 제대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率直한 實情이다. 처음에는 大體로 近代化論議에서 出發하였지만 그것도 社會學者들이 提示한 이른바 「傳統—近代 二分法」(traditional-modern dichotomy)에서 出發하였는데, 이것이 比較政治學이나 政治發展論에 끼친 貢獻은 至大하다 하겠으나, 問題點은 첫째 이 모델이 傳統的인 것과 近代的인 것을 一種의 「零合關係狀況」(zero-sum situation)에 있는 것으로 보아 相互排除關係로 보고 있는데 이는 經驗的 現實과 背馳된다는 점이며, 둘째 近代的인 것의 標本을 大體로 西歐社會의 政治·經濟·社會的인 諸現象에서 求하였다는 점에서 近代化=西歐化라는 等式을 暗暗裡에 前提하고 政治發展의 概念도 西歐的인 民主政을 닮아 가는 過程으로 把握하는 誤謬를 犯하였다. 이것은 또한 傳統—近代 二分法 모델의 理論的 基礎로 되어 있는 機能主義理論의 靜態性에서 온 것도 否認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政治發展의 概念定立摸索에는 機能主義理論의 批判이 先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機能主義理論의 最大缺陷은 人間行動體系로서의 社會體系의 諸原理를 生物有機體의 原理 등에서 類推解釋하려는 데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類推」(false analogy)는 첫째 homeostasis 概念과 社會統制 메카니즘의 混同 및 均衡概念·正常機能 그리고 同調(conformity)의 概念 등의 靜態性으로 社會變動을 제대로 說明하지 못하는 弱點을 드러내고 말았다. 또한 機能主義 理論들은 그 當然한 論理的 歸結로 人間行動體系에 있어서의 目標追求를 輕視하였으며 機能主義理論을 明示的으로나 默示的으로 前提한 많은 政治發展에 관한 論議들이 目標追求에 關聯된 行動들이 體系화된 것을 의미하는 政治體系를 變動에 있어서의 從屬變數로 다루는 誤謬를 범한 결과를 招來하였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理論은 N. Wiener 에 의하여 「動物과 機械에 있어서의 統制(control)와 通信(ccmmunication)의 理論」<sup>1)</sup>으로 登場한 以來 工學이나 生理學에서 주로 接用되다가 社會科學領域에 있어서도 그 效用性이 認定되어 특히 經營學分野등에 많은 技術的

1) N. Wiener, *Cybernetics,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1.ed., (New York: John Wiley & Sons, 1948)

應用이 推進되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사이버네틱스 理論의 政治學에의 導入은 K. W. Deutsch 에 의한 것인데 그의 communication 모델도 그 feedback 概念에 있어서 negative 한 側面에 치우쳐 결국 政府의 自律的인 메카니즘만 解明하고 널리 政治體系 全般을 說明하는 모델이 못되고 말았으며 그것도 결국은 西歐體制의 現狀維持를 위한 一種의 保守理論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새로이 脚光을 받고있는 것이 이른바 「第2 사이버네틱스」<sup>2)</sup> (the second cybernetics) 理論이다. 그것은 feedback 概念에 있어서 그 negative 한 側面과 아울러 positive한 側面까지 強調하는 이른바 「完全 피드백」(full feedback) 概念에 立脚하여 특히 人間行動體系에 있어서의 目標追求行動에 力點을 두며 體系에 있어서의 「自己安定化와 適應」(self-stabilizing and adaptation) 만이 아니라 오히려 「自己組織化」(self-organizing)를 強調하는 것이다. 이러한 視角에 立脚할 때 비로소 變動 그 自體를 體系의 正常的인 過程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逸脫」(deviation)로 보는 機能主義論의 靜態性이 克服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目標의 定立이나 追求는 隨時로 體系內에서 生成, 維持, 細目化되면서 變動하는 過程속에서 形成되어진다고 봄으로써 近代化=西歐化 내지는 英美化라는 等式에서 보는 歷史의 必然性和 社會變動 내지는 政治發展의 單一方向性을 假定하는 그 決定論的 視角으로 하여금 그 論理的 발판을 잃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第2 사이버네틱스」의 視角은 體系에 있어서의 初期 諸 條件들은 體系의 變動 내지는 進展에 따라 여러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는 이른바 「多終極性」(multifinality)<sup>3)</sup> 이라는 論理를 導出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開發途上國들이 西歐國家나 共產國家들의 모델을 미리 設定해놓고 뒤따라가야 할 아무런 理由가 없는 것이며 제가끔의 文化와 歷史의 狀況속에서 모든 可能性을 發見하며 意識目的인 選擇行爲에 의하여 目標를 定立 내지 追求하고 그것이 產出되어 feedback 되어 올 때에도 그 negative한 側面 뿐만 아니라 positive 한 側面까지 包含한 「完全 feedback」 統制에 의하여 目標를 再檢討하고 再調整하고 해서 제나름대로의 歷史를 創造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또한 歷史의 進展속에 人間의 意識目的인 主體의 意志가 客觀的 可能性과 交互作用하면서 因果關係 그 自體속에 作用하고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바로 「第2 사이버네틱스」 理論이 人間主義的 歷史觀의 理論的 基礎가 될 수 있는 理由가 있다.

또한 「第2 사이버네틱스」 理論에 있어서 人間의 意識目的인 目標追求行動을 強調한다는 것은 이러한 側面이 主로 構造化되어 이룩되고 있는 政治體系가 社會體系의 中樞의 位置를 차지한다는 論理의 導出을 可能케 하여 여기에 社會變動 내지는 政治發展 研究에 있어서 政治 그 自體야 말로 獨立變數라는 視角의 土臺가 마련되어진다.

2) Cf, M. Maruyama, "The Second Cybernetics: Deviation-Amplifying Mutual Causal Processes" in *American Scientist*, 1963, p. 51.

3) Walter Buckley, *Sociology and Modern Systems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1967), p. 60.

뿐만 아니라 이러한 分析視角에 立脚할 때 비로소 오늘날 開發途上國들의 政治가 既存의 諸 價値들을 權威的으로 配當하는 問題보다 새로운 價値를 創出하는데 그리고 既存의 構造를 維持하는 것 보다 새로운 構造를 模索하는데 더 核心的 領域을 가지고 있다는 現象을 올바르게 分析할 수 있으리라 보아진다.

## II. Cybernetics 理論의 概要

오늘날 많이 使用되고 있는 사이버네틱스라는 用語는 1948年 N. Wiener의 著書 「사이버네틱스—動物과 機械에 있어서의 統制(control)와 通信」<sup>4)</sup>이라는 著書에서 由來하고 있다. Wiener는 이 用語를 그리스語에서 舵手를 意味하는 kybernêtes로부터 따온 新造語라 하였다. 그런데 古代 그리스에서는 이미 「操舵의 學」(kybernêtikê)이라는 用語가 있었고 그것은 Platon에 의하여 政治學의 脈絡에서 使用되었다 하며 또한 1834年 프랑스의 物理學者 A. M. Ampère의 「科學哲學論」(Essai sur la philosophie des sciences)이라는 著書속에서 「cybernétique」라는 用語를 使用하여 政治學의 一部로서의 人間操縱技術을 取扱하는 學術을 指稱하였다고 한다. 어쨌든 cybernetics의 語源으로 되고있는 그리스語의 「舵手」를 意味하는 「kybernêtes」라는 用語가 또한 라틴語의 gubernator, 프랑스語의 gouverneur 그리고 英語의 governor와 同義語라는 것은 우리 政治學徒에게 깊은 興味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sup>5)</sup>

Wiener의 前記 著書는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을 莫論한 學問一般에 엄청난 影響을 미쳤는데 그것은 그 때까지 서로 전혀 別個의 學問이었던 機械의 研究, 生物의 研究 및 人間社會의 研究에 共通의 分析視角과 共通의 用語를 賦與하여 이들 諸學問의 相互交流와 境界를 開拓하는 것을 促進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그 共通의 分析視角의 核心은 統制(control)와 通信(communication)인데 이때의 通信이란 概念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있어서의 通信만이 아니고 生物體內의 諸器官間의 通信이나 機械와 機械間 그리고 機械와 人間사이의 通信도 包括한 概念인 것이다. 이리하여 사이버네틱스적인 研究의 對象에는 生物學的, 工學的 및 社會科學의 各分野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分野들이 서로서로 複合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된다.

사이버네틱스 理論의 核心이 統制와 通信인데 그것은 生物體 및 機械, 혹은 人間社會등에 있어서 제가끔의 領域에서나 혹은 相互複合된 混成體에서나 諸要素間의 連結을 지어 相互의 聯關性을 갖게 하는 基礎가 되어 있다. 여기에 사이버네틱스理論이 體系理論과 不可分의 關係를 맺게 되는 理由가 있는데 그것은 體系란 相互 關聯된 諸要素에 의하여 構成되어 있는 複合體를 意味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이버네틱스理論은 生物體, 機械 혹은 人間社會등 各級의

4) Wiener, op. cit.

5) N. Wiener, *I am a Mathematician* (New York: Doubleday, 1956), p. 322.

體系들이 共通하는 統制와 通信이란 概念을 核心으로 하여 一般體系理論樹立에 括目할만한 貢獻을 하였다.

體系理論과의 關聯에서 사이버네틱스의 貢獻을 보면 우선 統制의 理論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確率過程論을 主要한 道具로 하고 있다. 例컨대 船舶을 豫定된 目標에 向해 進水시킬 때 風向 및 波濤와 같은 統制할 수 없는 變數와 키(舵)와 같은 統制와 管理가 可能한 變數가 包含되어있는데 이때에 만일 風向이나 波濤라는 變數의 過去로부터 現在까지의 變量值가 주어 져있다 할 것 같으면, 이에 根據하여 키를 어떻게 效率的으로 잡아 갈 것인가를 決定할 수 있을 것이다. 漸次的으로 얻어지는 情報에 根據하여 主體가 決定을 내리고 어떤 目標值에 到達 하기 위하여 對象에 作用하여 이를 統制하는 過程에 관한 理論으로는 또한 運用研究(OR), 게임理論, 推計學에 있어서의 品質管理論이나 統計的 決定論등이 있는데 사이버네틱스를 비롯하여 이러한 理論들에는 세계의 問題領域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첫째, 統制對象과 그 認識方法의 問題이고 둘째, 主體의 問題, 그리고 셋째는 統制의 方法의 問題이다.

첫째 問題에 관한 Wiener의 見解를 보면 사이버네틱스의인 視角에 의한 世界觀을 잘 알 수 있다. 즉 Wiener에 의하면 世界는 決定論的 構造를 가진 機械的 메카니즘으로서가 아니라 確率論的 내지는 統計理論的인 相互依存關係에 의하여 結合되어진 要素들이 構成하는 體系로서 理解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또한 이러한 世界의 認識도 學習이나 實驗의 累積에 의하여 漸次的으로 深化되어지는 것이며 한꺼번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經驗科學의 認識의 節次에 있어서는 實驗의 節次가 보여주듯 過去로부터 現在에 이르는 對象에 관한 一連의 知識에 根據하여 對象의 本質이 推測되며 또한 이리하여 얻어진 假說을 檢證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節次에 있어서도 觀測과 統制가 相互依存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둘째의 問題는 統制의 主體에 관한 것인데 目標의 設定, 價値, 政策原理 내지는 決定形成集

셋째 問題는 統制의 方法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主로 論議되는 것은 이른바 feedback의 問題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feedback은 實際의 結果가 還流되어 原因側에 反映되는 것을 意味하는데 目標에의 到達을 위하여 行動이 過去의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修正 내지는 補強되며 漸次로 有效性과 能率性을 높여가는 過程인 것이다. 生物體의 例를 보면 感覺器官, 運動器官 및 神經系統등은 相互 feedback의 環狀線(loop)을 形成하여 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外界의 情報이 感覺器官에 投入되면 이에 應한 命令이 通信體系를 거쳐 運動器官에 送付되고 이에 應하여 運動器官은 外界에 反應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原應이 어떠한 效果를 發生하였는가, 즉 命令이 어느 程度 遂行되었는가라는 情報이 또다시 感覺器官에 投入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feedback이라는 概念과 關聯하여 重要視되는 것이 豫測理論인데 統制行動을 效率의으로 遂行하기 위하여는 必須不可缺한 役割을 하고 있다. 感覺器官에 投入된 外界의 情報에 應하여 運動器官이 反應을 일으켜 어떤 行動을 產出하면 그 產出行動이 實際로 效果를 發生하기까지는 多少間의 時間이 걸리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이미 外界는 變化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特定目標을 追求하기 위해서는 그 時間의 遲延(lag)을 考慮하여 未來의 外界의 變化를 미리 豫測하고 거기에 相應하는 命令을 運動器官에 送付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컨대 高射砲로 敵機를 擊墜하기 위해서는 觀測된 敵機의 位置에 彈丸을 날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 時刻의 敵機의 位置를 豫測하여 바로 그 時刻에 그리고 그 位置에 彈丸이 到達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敵機의 現在의 位置의 觀測만이 아니라 一定時間에 걸쳐서 觀測한 資料를 모아 分析함이 必要해진다. 이러한 資料의 集積과 分析은 通信體系內部的 自動機械가 迅速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人間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하여 이루어진 豫測은 결국 確率的인 豫測이며 이러한 豫測을 위한 數理統計學的理論의 연구는 feedback 機構의 數學的 理論과 더불어 사이버네틱스理論의 重要한 構成要素가 되고 있다.

feedback 統制現象은 또한 生物體內에서도 發見된다. 즉 體溫, 脈搏, 血液의 滲透壓과 水素이온濃度등을 一定限界內에 維持하는 이른바 動的 均衡作用은 一般的으로 homeostasis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feedback 統制機構의 一種인 것이다. T. Parsons의 社會體系理論에 있어서의 統制理論은 生物體의 이 homeostasis 機能으로부터의 類推原理에 根據하고 있다 함은 너무도 周知된 이야기이다.

그러나 feedback 統制現象은 人間行動에서 그 가장 두드러진 特性을 發見할 수 있는데 특히 學習過程은 그 曲型的인 것이 되고 있다. 이런 點에서 人間이야말로 사이버네틱스에서 論議되는 「自己組織體系」(self-organizing system)의 가장 代表的인 것이 되는 것이며 또한 여기에 사이버네틱스 理論이 社會科學에 援用될 수 있는 根據가 있는 것이다.

사이버네틱스 理論의 核心이 統制와 通信이며 그것은 目標물 中心으로 feedback 概念과의 關聯에서 把握될 수 있고 또 그것은 體系理論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함은 屢次 言及하였거니와 사이버네틱스理論과 一般體系理論과의 關聯에서 feedback 統制機能이 主로 「自己安定化

와 適應」(self-stabilizing and adaptation)에만 關한 것이나 그렇지 않고 自己安定化와 適應뿐만 아니라 또한 「自己組織化」(self-organizing)까지 하느냐에 注目하여 一般體系理論樹立에 있어서 특히 後者の 重要性을 強調하며 사이버네틱스 理論의 이러한 側面을 浮刻시키려는 두드러진 傾向을 볼 수 있다.<sup>9)</sup> 그것은 主로 feedback 統制에 있어 前者는 그 negative 한 側面이 強調되는데 對하여 後者の 경우는 오히려 그 positive 한 側面이 強調되고 있다. W. Buckley는 體系理論樹立을 摸索함에 있어서 「形態安定」(morphostasis)과 「形態形成」(morphogenesis)이라는 概念을 對比시키면서 前者의 경우는 主로 negative feedback 그리고 後者에 있어서는 positive feedback의 原理가 適用되며 前者의 例로는 生物有機體의 homeostasis, 社會文化體系에 있어서의 儀式 등에서, 그리고 後者の 例로는 生物의 進化, 人間의 學習 및 社會發展 등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sup>10)</sup> 이러한 脈絡에서 M. Maruyama의 이른바 「第2 사이버네틱스」(the second cybernetics) 概念은 우리에게 많은 示唆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相互因果聯關內에 있어서 逸脫을 阻止하는(deviation-counteracting) 側面에 注目함으로써… 사이버네틱스 理論家들은 相互因果聯關이 逸脫增幅(deviation-amplifying)을 하는 體系에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體系는 到處에 있다. 즉 產業의 資本蓄積, 生物有機體의 進化, 各樣各種의 文化의 進步, 精神疾患을 일으키는 對人關係의 過程, 國際紛爭, 惡循環이나 複雜한 利害追求등이다」라고 하고 있다.<sup>11)</sup>

사이버네틱스理論이 「類推」(analogy)의 發想에 根據하여 여러 體系間에 있어서의 「構造的 同型性」(isomorphism)에 着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混同해서 안될것은 體系의 相異한 構造的 次元間에 있어서는 그 「構造的 類似性」(structural similarity) 뿐만 아니라 또한 「構造的 相異性」(structural difference)을 等閑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sup>12)</sup> 오히려 이른바 「第2 사이버네틱스」 系列理論들은 그 構造的 相異性에 보다 더 着眼하고 있는 것이며 그 相異性은 feedback 統制에 있어서 主로 그 negative한 側面이 強調되느냐 혹은 그 negative한 側面뿐만 아니라 positive한 側面까지 包含한 「完全 feedback」 統制現象에 着眼하고 있느냐에 있다. 가령 自動溫度調節機나 誘導미사일같이 그 目標值 追求機能에 있어 高度로 發達한 機械라 할지라도, 첫째 目標值나 體系의 行動樣式이 體系內에 事前에 全面的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점에서, 둘째 feedback 回路는 「循環因果連鎖」(circular causal chains = pseudo feedback loop) 以上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生物有機體의 進化나 혹은 人間行動體系의 變動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目標值나 그 行動樣式이 隨時로

9) Cf. M. Maruyama, op. cit. E. Laszlo, *Introduction to Systems Philosophy*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73), W. Buckley, op. cit. L. von Bertalanffy, "General System Theory-A Critical Review," G.S., VII, 1962. W.R. Ashby, *An Introduction to Cyberne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56), N. Wiener, *Cybernetics*, 2nd., (New York: Wiley, 1961).

10) Buckley, op. cit., pp. 58~59.

11) Maruyama, op. cit., p. 164.

12) Cf. Buckley, op. cit., p. 3.

政治發展研究에 있어서의 사이버네틱스理論의 效用性

體系에서 生成 維持 細目化되면서 變動하는 過程속에서 形成되며 둘째 feedback 은 ne-

gative한 側面뿐만 아니라 그 positive한 側面까지 包含하는 「完全 feedback」 統制現象을 보

야 할 사이버네틱스 理論은 이 後者の 경우에 力點을 두는 「第2 사이버네틱스」 系列 理論들  
인 것이다.

사이버네틱스 理論이 社會科學分野에 導入됨에 있어서 가장 重要視되는 것이 이 feedback 統

來의 많은 論議들은 政治를 權力現象에 焦點을 맞추어 把握하려 한다든지, 또는 秩序維持를 위한 物理的 強制力이란 側面에서 본다든지, 혹은 「諸價値의 權威的 配當」이란 角度에서 分析하려 했다. 물론 權力現象이나 物理的 強制力을 論議할 때는 單純한 動物的인 暴力社會와 人間社會를 區別하기 위하여 正當性이란 概念을 結付시킬 것을 잊지 않았다. 價値의 權威的 配當이란 概念 속에도 그 權威란 用語가 正當성과 不可分の 關聯을 갖는 것은 再言의 餘地가 없다. 政治現象에 있어서 權力現象이나 價値의 配當問題가 重要함은 물론이겠지만, 이러한 論議들에 있어서의 弱點은 政治의 또 하나의 重要한 側面, 즉 共同體를 위해서 積極的으로 새로운 價値를 創出하며 새로운 目標을 定立하고 再調整하고 하는, 말하자면 政治에 있어서의 肯定的이며 積極的인 分析視角을 缺如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分析視角의 強調에는 新生國政治의 研究가 크게 寄與한 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筆者는 政治라는 現象에 대하여 「共同體에 있어서 目標나 優先順位를 定立하며 執行하는데 主로 關聯되는 行動體系의 過程」이라는 定義를 試圖해 본다. 共同體에 있어서 目標나 優先順位를 定立하는 데는 여러 利害의 對立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勢力이나 權力의 關係가 없을 수 없으며, 그것은 價値의 配當을 어떻게 하느냐도 包含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過程이 秩序 있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單純한 物理的 強制力이 아닌 權威에 根據한 國民들의 承服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筆者가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單純히 權力의 問題나 價値의 權威的 配當, 그리고 秩序維持의 問題뿐만 아니라 目標追求라는 側面에서 體系의 發展을 스스로 追求하고 摸索해 간다는 積極的인 側面인 것이다. 이러한 視角에서 政治의 概念을 把握한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新生國들의 政治現象을 分析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데, 즉 오늘날 많은 新生國들에 있어서는 既存의 諸價値를 權威的으로 配當하는 問題보다도 새로운 價値를 創出하는 데, 그리고 既存의 秩序를 維持하는 것보다 새로운 秩序를 摸索하는 것이 政治의 核心的인 問題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政治發展이나 比較政治研究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問題는 이른바 「傳統—近代 二分法」(traditional-modern dichotomy) 모델의 假定이며 이것은 近代化=西歐化 내지는 좀 더 極端的으로 表現하자면 近代化=英美化라는 等式이 默示的으로나 혹은 明示的으로 前提되어 있다는 점이다. 從來 政治發展論이나 比較政治論에 있어서 이른바 傳統—近代 二分法 모델이 끼친 影響은 至大하였고, 그것은 社會學者들의 貢獻에 힘입은 바 크다 함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일찌기 Weber는 封建社會와 資本主義社會 사이의 明確한 對照를 敘述하면서 傳統的 및 合理的 價値 사이의 區別을 強調하였다.<sup>14)</sup> Weber의 影響을 크게 받은 T. Parsons는 「傳統—近代 二分法」(traditional-modern dichotomy)에 根據한 이른바 「形態變數」(pattern variable) 概念을 提

14) N. Birnbaum, "Conflict Interpretations of the Rise of Capitalism: Marx and Weber" i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IV, June, 1953, p. 127.



議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sup>15)</sup>

感情—感情中立 (affectivity— affective neutrality)

自己指向—集團指向 (self-orientation—collectivity-orientation)

普遍主義—特殊主義 (universalism—particularism)

歸屬本位—能力本位 (ascription—achievement)

分化—未分化 (specificity—diffuseness)

Parsons 는 이러한 二分法에 根據하여 社會構造 (social structure)의 네가지의 主要類型을 提示하였는데, 즉 첫째 「普遍主義的—能力本位形態」(the universalistic—achievement pattern) 둘째 「普遍主義的—歸屬本位的 形態」(the universalistic—ascription pattern) 셋째 「特殊主義的—能力本位的 形態」(the particularistic—achievement pattern) 그리고 넷째 「特殊主義的—歸屬本位的 形態」(the particularistic—ascriptive pattern)<sup>16)</sup> 가 그것이며, 첫째 것은 產業社會 (industrial societies)에, 둘째 것은 獨逸社會構造와 大體로 蘇聯社會에, 셋째 것은 古典的 (classical) 中國社會構造에, 그리고 넷째 것은 라틴 아메리카 社會들에 適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sup>17)</sup>

G. Almond 는 Parsons 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은 政治學者中的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한편 그는 傳統—近代 모델이나 農耕—產業 모델 등의 二分法이 잘못하면 「不幸한 理論的 分極化」(unfortunate theoretical polarization)<sup>18)</sup>를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警告하면서도 J.S. Coleman 과 더불어 모든 政治體系는 傳統社會에서 近代社會로 이어지는 連續體 (continuum) 의 그 어느 點에 位置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을 뿐더러,<sup>19)</sup> 또한 그도 결국 政治體系의 傳統的 類型은 「特殊主義的이며 歸屬的이고 機能的으로 未分化된 規範과 構造로 特徵지워지는」 것으로, 그리고 政治體系 近代的인 類型은 「普遍主義的이며 能力本位的이고 機能的으로 分化된 規範과 構造로 特徵지워지는」 것으로 봄으로써<sup>20)</sup> Parsons 의 「形態變數」分析을 그대로 援用하고 있다. Parsons 의 이른바 「普遍主義的—能力本位的」 社會構造의 模型이 英美產業社會의 大體的인 特徵들을 理想型化시킨 것은 分명한데, 결국 가장 近代化된 形態는 英美的인 것이고, 따라서 결국 近代化는 西歐化, 좀 더 좁게는 英美化를 의미한다는 것이 되지 않을수 없다. Almond 가 S. Verba 와 더불어 提示한 「市民文化」(civic culture) 모델도 英·美, 특히 英國의 政治的 經驗을 土臺로 하고 있으며, 「地方政治文化」(parochial political culture)

15) T. Parsons and E. Shils (ed.),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Row, 1965), p. 77.

16)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2), p. 102, p. 180.

17) *Ibid.*, pp. 184~199.

18) Gabriel A. Almond, "A Functional Approach to Comparative Politics" in G.A. Almond & J. S. Coleman (ed.):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p. 23.

19) Almond & Coleman, *op. cit.*, p. 533.

20) Almond, *op. cit.*, p. 23.

「臣民政治文化」(subject political culture) 및 「參與政治文化」(participant political culture) 등의 개념도 같은 脈絡에서 考察될 수 있다.<sup>21)</sup> D. Apter 는 構造的인 側面과 行態的인 側面에서 政治體系的 類型을 分類하는 試圖를 보여 주고 있는데, 構造的 側面에서는 政府의 位階秩序(hierarchy)를 焦點으로 하여 政府의 統制水準에 따라 「位階的」(hierarchical)인 것과 「피라미트의」(pyramidal)인 型으로 分類하고, 行態的인 側面에서는 價値 또는 體系가 追求하는 目的에 따라 「終極的」(consummatory)인 것과 「手段的」(instrumental)인 것으로 分類하여 이들을 縱軸, 橫軸으로 結合시킴으로써 4個의 類型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發達된 것으로 假定되는 것이 피라미트型的 階層秩序와 手段的·世俗的 價値가 結合한 이른바 「妥協體制」(reconciliation system)는 西歐民主體制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봄으로써 역시 西歐偏向的인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sup>22)</sup>

F. Riggs 도 그 初期著述들에 있어서는 政治發展의 概念을 西歐의 民主政과 結付시키고 있었다. 그는 政治發展은 「主로 民主化의 過程, 즉 政府에 대한 民衆統制의 成長」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다른 말로 表現하자면 「政治發展은 政治化(politicization)의 過程이며 즉 國家活動에 있어서의 參與 혹은 關與(participation or involvement)를 意味」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3)</sup>

결국 傳統—近代 二分法에 너무 依存하는 接近法들은 近代化=西歐化라는 等式을 暗黙裡에 前提하고 있는데, L. W. Pye 가 警告하듯 「政治發展의 問題를 單純히 政治的 近代化로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무엇이 西歐的이며 무엇이 近代的인가를 區別할 수 없는 困難에 빠지며, 따라서 兩者를 區別하려면 다른 基準이 必要한 것이다.»<sup>24)</sup> H. Spiro 도 「政治發展을 近代化와 混同하지 말 것」<sup>25)</sup>을 力說하고 있으며, 또한 S. Huntington 도 政治發展의 概念을 近代化나 産業化와 混同하는 論議들을 批判하고 있다.<sup>26)</sup>

R. T. Holt 와 J. E. Turner 는 Parsons 의 形態變數에 基礎한 Almond 의 分析을 특히 美國과 蘇聯의 比較의 경우를 들어 그 一方的인 偏向性을 指摘하고 있는데, 즉 그들은 Almond 의 分析基準으로 오늘날의 美國과 蘇聯, 그리고 1840 年代의 美國과 帝政露西亞를 「傳統—近代

21) Cf. G.A. Almond & S. Verba, *The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5)

22) David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p. 16~22.

23) Fred Riggs, "Bureau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A Paradoxical View", in Lapalombara, ed., *Bureau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p. 21~35.

24) Lucian W. Pye, "The Concept of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Annals*, 358, March, 1965, p. 7.

25) Herbert J. Spiro, "Contrasting Approaches to Comparative Politics", —prepared for discussion at the 1964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September 9~12, 1964, p. 6.

26)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Development and Political Decay," *World Politics*, Vol. XVII, No. 3 (April 1965), pp. 386~430.

繼續體」上에 配列한다면 第一 近代化된 것은 물론 오늘날의 美國일테지만, 第二의 자리에는 오늘날의 蘇聯보다는 1840年代의 美國이 차지할 것이고, 오늘날의 蘇聯은 第三의, 그리고 1840年의 帝政露西亞는 第四의 자리에 位置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分明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있다.<sup>27)</sup>

傳統—近代 二分法이 갖는 또 하나의 弱點은 傳統的인 것과 近代的인 것을 一種의 零合狀況(zero-sum situation)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델이 理想型으로서의 簡潔性은 있을지 모르지만 分明히 經驗的인 現實에는 背馳된다. R. Bendix가 指摘하듯 좀 더 近代的이면 그만큼 덜 傳統的이라는 식으로 傳統的인 것과 近代的인 것이 相互排除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sup>28)</sup> 또한 C. S. Whitaker가 觀察하듯 傳統的인 것과 近代的인 것이 混在하거나 共存하는 現象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sup>29)</sup> J. White는 日本人들의 行態를 分析한 끝에 兩者가 共存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近代的인 것이 오히려 傳統的인 것을 強化시키는 現象도 볼 수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sup>30)</sup> 또한 封建時代의 武士들의 倫理意識이나 家父長의 人間關係는 明治 日本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日本에 있어서도 雇傭主와 被雇傭者關係에 作用하고 있으며, 특히 明治時代에 있어서는 이러한 人間關係가 經濟的近代化를 위하여 至大한 貢獻을 한 것이다.<sup>31)</sup> 또한 Parsons의 形態變數分析에 있어서의 傳統的 價値의 한 側面인 集團指向(collectivity-orientation)은 그의 近代的 價値의 普遍主義(universalism)와 어느 정도 相互補完의 일 수 있는 側面도 있다는 점을 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政治發展論研究에 있어서의 셋째 問題點은, 많은 경우 그 理論的 틀을 機能主義에서 援用하고 있다는 점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機能主義理論의 根本的인 假定은 生物學이나 生理學의 「homeostatic mechanism」에서 類推한 社會體系에 있어서의 「selfregulating mechanism」이며, 따라서 社會體系는 靜態的이건 動的(moving)이건 간에 型態(pattern)의 어떤 恒久狀態를 維持하려고 하는 性向이 있는 것으로 假想한다.<sup>32)</sup> 換言하면, 社會體系는 「靜態均衡」이건 「動的均衡」이건 간에 어떤 「均衡된 狀態」(equilibrated state)를 維持하려는 性向을 가지며, 만일 어떤 要因들에 의하여 이 均衡된 狀態가 흔들리면 生物有機體의 「homeostatic mechanism」의 作用과 類似한 作用에 의하여 社會體系는 기울어진 均衡을 回復하려는 性向을 갖는다.

27) R. T. Holt and J.E. Turner, *The Political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D. Van Nostrand Co., Inc., 1966), pp. 18~19.

28) Rinehard Bendix, "Tradition and Modernity Reconsidered", *Comparative Studies in History, and Society* Nov. 9, 1967, p. 326.

29) C. S. Whitaker, Jr., "A Dysrhythmic Process of Political Change", *World Politics* Vol. XIX, No. 2, (January 1967), pp. 190~217.

30) James W. White, "Tradition and Politics in Studies of Contemporary Japan", *World Politics*, Vol. XXVI, No. 3, (April 1974), pp. 402~3.

31) Robert Ward and Dankwart Rustow, eds., *Political Modernization in Japan and Turke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p. 445~6.

32) Parsons, *The Social System*, pp. 483ff.

이 生物有機體의 homeostasis 는 feedback 統制機能의 그 negative 한 側面에 關한 것이라 함은 既述한 바와 같다. 어쨌든 Parsons 는 이러한 性向을 社會體系에 있어서의 「law of inertia」라고 假定하고 있다.<sup>33)</sup> 機能論者들에 따라 多少의 相異는 있지만 大體로 이 均衡狀態를 社會體系에 있어서의 「正常機能」(normal functioning), 또는 「適正作用」(proper working) 으로 보려고 한다.

社會體系는 役割(role)이 構造化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데,<sup>34)</sup> 어떤 下位體系는 全體體系의 生存能力(viability)이나 正常機能을 위한 어떤 「機能的 要請」(functional requirement)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어떤 役割을 遂行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다. 물론 前者는 順機能(eufunctional)의 경우이고 後者는 逆機能(dysfunctional)의 경우이다. 順機能的인 作用들은 언제나 逆機能的인 作用들을 相殺하려는 性向을 가지며, 그렇게 함으로써 逆機能的인 作用들이 均衡狀態에 混亂을 가져오는 것을 牽制하고 기울어진 均衡을 回復시키려는 것이다. 社會體系의 變動은 이러한 逆機能的인 側面の 比重이 커갈 때 促進되어지는 것이며,<sup>35)</sup> 結局 體系에 있어서의 緊張(strain)의 增大는 變動에의 壓力이 되는 것이다. 社會體系는 相互依存된 複合的인 諸部分 내지 下位體系에 의하여 構成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部分의 緊張은 곧 他部分에 波及된다고 보며, 따라서 變動의 要因 또한 複合的인 것으로 본다.

機能主義理論이 社會變動 내지는 政治發展을 다루는데 있어서 露程되는 決定的인 缺陷은 生物有機體의 homeostasis 의 negative feedback 側面을 強調한 나머지 變動의 原動力이 되고 있는 體系의 緊張을 逆機能的인 것으로만 보고 따라서 결국 變動自體를 正常機能에서의 逸脫(deviation)로 보는 誤謬를 犯한데 있다. 사실 體系에서 生成되는 緊張은 大體로 positive feedback 의 경우에서 오는데, 그것은 變動에의 推進力이며 따라서 體系에 있어서의 正常的인 過程의 한 側面을 形成하는 것이다. 機能論者들은 이러한 positive feedback 내지는 緊張, 그리고 나아가서는 變動 自體를 正常機能에서의 逸脫(deviation)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 바로 機能主義의 治癒할 수 없는 病源이 도사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人間行動體系로서의 社會體系는 停滯狀態에 있는 것이 아니고 恒常 自體修正을 加하며, 構造의 維持뿐 아니라 改善 내지는 創造 등을, 실사 때에 따라서는 極히 試行錯誤的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推進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過程에서 利害가 銳敏하게 對立하는 수도 있는 것이며, 그것이 緊張을 增大시키고 또한 變動을 惹起시키고 하지만, 그 모든 過程들이 體系의 正常的인 狀況인 것이며, 萬一 이러한 側面들을 逸脫로서만 取扱한다면 그러한 理論 模型은 極히 一面的이란 非難을 免하기 어려울 것이다.

政治發展研究에 있어서의 네째 번의 問題點은 機能主義理論의 假定으로부터 派生하고 있다.

33) *Ibid.*, p. 480.

34) Parsons & Shils, *op. cit.*, p. 23.

35) Cf. Robert K. Merton, *Social Structure*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7), p. 51.